

# “사람들과의 소통 깨닫고 힐링했어요”

### JTBC ‘더 패키지’서 열연한 이연희 실제 가이드들 보며 연구... ‘말발’로는 밀려 역사 배울 수 있는 패키지여행에 매력 느껴



“이번 작품을 준비하려고 처음으로 패키지여행을 가봤어요. 체력 소모는 많지만 역사 공부를 아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힐링 드라마’라는 별칭을 얻으며 종영한 JTBC 금토극 ‘더 패키지’에서 여행 가이드 윤소소를 연기한 배우 이연희(29)는 21일 서울 삼정동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연희는 “공생미션을 2박 3일간 미리 다녀와서 촬영할 때는 익숙한 장소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패키지여행은 자유여행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드라마에서 유창한 프랑스어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달 정도 개인 레슨을 받으며 ‘열공’했어요. 프랑스를 원래 좋아했거든요. 스무 살 때 배낭여행부터 시작해 프랑스에는 한 너댓 번 다녀왔죠. 프랑스 영화도 즐겨 봐서 언젠가는 꼭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ABC’ 단계조차 어렵더라고요. 그 단계를 넘기니 문장이 빨리 외워졌어요.”

그는 그러면서 “실제 가이드들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각자 개성이 뚜렷하더라”며 “배우와 가이드의 비슷한 점은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노력한다는 것인데, 배우인 저도 가이드들 사이에 있으면 ‘말발’이 밀리더라”고 웃었다.

이연희는 소소와 마루(정용화 분)처럼 낯선 곳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행지에서는 운명적인 만남이 없다가도 생길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휩싸이죠. 그만큼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요. 굉장히 공감됐어요.(웃음)”

그는 유난히 진했던 키스신에 대해서도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일부러 오히려 싸와 상의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장면이 나왔다”며 “진했지만, 이유가 있는 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연희는 만약 시즌2가 제작된다면 이번에는 남프랑스를 배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그는 “유럽 어떤 어디든 다 좋을 것 같다. 해보고 싶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2001년 제2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이연희는 이후 영화 ‘백만장자의 첫사랑’(2006), ‘순정만화’(2008), ‘결혼전야’(2013), ‘조선명탐정 : 사라진 놈의 딸’(2015)과 드라마 ‘에덴의 동쪽’(2008~2009), ‘파라다이스 목장’(2011), ‘구가의 서’(2013), ‘미스코리아’(2013~2014), ‘화정’(2015), ‘다시 만난 세계’(2017) 등에 꾸준히 출연해왔다.

이연희는 우리나라 나이로 서른이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고, 그게 연기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저는 노력파예요. 그런데 노력과 고민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되는데 저는 마음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도 30대에 접어들면서 안정감을 많이 찾았어요. 특히 이번에 ‘더 패키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깨닫고, 제대로 ‘힐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TV속의 TV(재)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0 VJ 특공대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00 국회인사청문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11		50 매드독 (재)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방송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총조립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건강혁명			55 닥터 365
2	10 미래기획 2030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5 프리파라 2 55 양코르 MBC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도전! K-스타트업 2017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50 세상기록 48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5 숨터 (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썰리고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35 돌아온 복단지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총조립
7	00 KBS 뉴스 7 35 남도 스페셜 55 숨터	50 내 남자의 비밀 (재)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콕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명견만리			
10	30 KBS 뉴스라인	00 매드 독	00 돈꽃(재)	00 이판사판
11	00 문화의 향기 50 동행	10 고백부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12	40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부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트윅 2천만 건” 방탄소년단 무대 AMA ‘최고의 순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 미국 매체 소개...美구글 트렌드 검색 1위도

미국 매체들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 무대를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소개했다.

미국 피보드는 19일(이하 현지시간)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최고의 순간 10에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꼽으며 “방탄소년단이 ‘DNA’ 무대를 하는 동안 아미(팬클럽명)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미국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의 인터넷판도 방탄소년단의 무대뿐 아니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까지 시상식의 ‘최고의 순간’들로 선정하며 “방탄소년단이 모든 관객을 열광시켰다”고 소개했다.

또 일간지 뉴욕포스트와 패셔니 인스타일의 인터넷판은 방탄소년단의 이날 무대를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주간지 스피어의 인터넷판은 ‘시상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으로 꼽았다.

방탄소년단은 19일 오후 8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 로소프트씨어터에서 열린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0팀의 퍼포머 중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

현장 열기를 반영하듯 시상식 직후 미국 구글 트렌드 검색 순위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으며 트위터에서는 방탄소년단 관련 게시물이 2천만 건 올라왔다.

미국 ABC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는 2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모습을 보인 후 이와 관련한 트윗(트위터에 글을 쓰는 것)이 2천만 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의 무대와 레드카펫 현장을 소개하며 “이날 객석의 거대한 환호성은 방탄소년단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들은 완벽히 해냈다”고 극찬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NBC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The Ellen DeGeneres Show) 녹화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연합뉴스

## 또 에이핑크 협박범? ... ‘언터처블’ 제작발표회 폭발물 신고 소동

### 내부 수색 등으로 행사 20분 늦게 시작

### 에이핑크 소속사 “정황상 동일 인물 추정”

21일 JTBC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TBC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신원 미상의 남성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로 전화를 걸어와 “‘언터처블’ 제작발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한이 있다,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호텔 측의 신고로 경찰이 10여분 후 출동해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으며, 이어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행사장 내부를 수색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터처블’ 제작발표회는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이로 인해 예정보다 20여분 늦게 행사가 시작됐다.

오는 24일 시작하는 ‘언터처블’에는 진구, 김성균과 함께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가 출연한다. 이로 인해 이날 전화 협박범이 울타리 수차례 에이핑크를 협박해온 동일 인물이 아닐까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에이핑크의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오늘 전화 협박범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그간 협박을 해온 동일 인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초부터 에이핑크가 출연하는 쇼케이스와 KBS 2TV ‘뮤지뱅크’ 녹화장 등 여러 행사장에 한 남성이 잇따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걸어 경찰이 출동했다. 이 남성은 에이핑크에 대해 각종 악성 댓글을 달고 살해 협박도 일삼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 협박범이 그와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이핑크 멤버의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40 글로벌 애반 찾아 삼만리(재)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중국 차츰 기행 <3부 푸젠, 차의세계화>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오리비결 (미지차와 무성박지)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똑딱맨	12:40 지식채널 e
07:45 뽀롱뽀롱 뽀로로 <물리학이 세상 물정과 만나면?>	12:45 EBS초대석 (물리학이 세상 물정과 만나면?)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13:40 미래강연 Q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한글이 아호2	15:00 마사하고 곰
09:00 레이디버그	
09:30 물랑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20:50 세계테마기행 <적도 위에 푸르른, 미크로네시아 3부 오래된 미래>
15:45 레전드하러 삼국진	21:30 한국기행 <취해볼까 가을 제주 3부 디디 가더라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국한직업
16:30 한글이 아호 2(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9:00 몬카트(재)
17:30 똑딱맨(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9:30 EBS 뉴스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20:00 장수의 비밀(재)
19:00 몬카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 (음 10월 5일 癸丑)

<p><b>子</b> 48년생 착실하게 정도를 견고 있다면 기쁜 일이 생긴다. 60년생 실용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마음먹고 있었던 바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날이다. 84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24, 64</p>	<p><b>午</b> 42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주어야. 54년생 그동안 비밀에 싸여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66년생 오래 가지 않게 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78년생 여러 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울 수가 있다. 90년생 기차 없이 버려져. 행운의 숫자 : 37, 39</p>
<p><b>丑</b> 49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어느 한 순간에 기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61년생 결과적으로는 어긋나게 되어 있으나, 73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확실하게 뜯어고치는 것이 낫다. 85년생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조치하라. 행운의 숫자 : 24, 64</p>	<p><b>未</b> 43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 55년생 방심한다면 낙할 수밖에 없으나, 67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다. 79년생 기민하게 대처하라. 91년생 상상가에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81, 80</p>
<p><b>寅</b> 50년생 핵심을 벗어난다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62년생 대체로 승리를 타게 되지만 변수도 보인다. 74년생 지엽적인 것은 빼고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86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분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59, 23</p>	<p><b>申</b> 44년생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일러. 56년생 참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68년생 진퇴를 결정하기가 애매할 때에 판단의 단초를 마련함은 신중해야 한다. 80년생 보이는 것이 항상 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하게 선택하라. 행운의 숫자 : 62, 75</p>
<p><b>卯</b> 51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바를 펼친다면 뜻을 이루리라. 63년생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뒤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75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87년생 기회가 주어질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4, 59</p>	<p><b>酉</b> 45년생 쉽지 않은 일을 것이니 낙관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다루자. 57년생 수단의 활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69년생 특별한 행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81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0, 67</p>
<p><b>辰</b> 52년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보인다. 64년생 부분만을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전체를 들여다보고 발발할 일이다. 76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 88년생 한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느니라. 행운의 숫자 : 52, 82</p>	<p><b>戌</b> 46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58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무모한 실행은 손해만 자초할 뿐이다. 70년생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82년생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0, 48</p>
<p><b>巳</b> 53년생 방치한다면 패착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65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77년생 시간에 좌우되는 문제이니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89년생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04, 12</p>	<p><b>亥</b> 47년생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59년생 마음을 비우고 일한다면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으나, 71년생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임의적 상황에 놓여 있다. 83년생 오늘 반드시 행해야 할 바가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84, 1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